

남산 절반량 토사 걷어내 악성 천정천 바닥 낮췄다



지난 6월 영산강 살리기 6공구 승촌보 인근 현장 준설 공사 모습. 영산강에서는 총 8개 구간에서 서울 남산의 절반 크기인 2454만2000㎡를 준설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 준설 효과

지난달 영산강 준설 사업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초 시작해 2년 가까이 걸렸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 내내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국토해양부는 물그릇이 커져 홍수 예방 효과가 있고 오염된 퇴적토를 걷어내 수질도 좋아진다고 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대규모 준설은 생태계 교란은 물론 유속을 빨라해 침식·제방 유실 등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맞섰다.

영산강 준설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됐는지, 효과와 우려는 뭔지 짚어봤다.

강폭 넓어지고 수심 깊어져

◇준설 왜=한 때 국내 최대 내륙포구 중 하나로 많은 운반선이 드나들며 바다와 육지를 잇는 가교역할을 했던 영산포. 하지만 수량이 줄고 뱃길이 끊기면서 예전의 명성은 사라졌다.

영산강을 오랜기간 방치한 탓에 강바닥 곳곳에 퇴적토가 쌓이고 잠목이 우거졌기 때문이다. 영산강은 강폭이 500~600m에 이르지만 물이 흐르는 구간은 50m도 채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또 잠목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만 오면 홍수 날까 마음 졸이게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산강 준설이 이뤄지면서 물그릇이 이전보다 10~14배나 커졌다. 물은 많아졌지만 수위는 낮아져 홍수 위험에서 벗어났다.

승촌보 인근 나주시 노안면 박천수 씨는 “예전에는 유량도 부족하고 강폭이 좁아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났다”며 “준설 뒤에는 강폭도 넓어지고 수심도 깊어져 마음 졸일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1.5~2m 깊이 토사 준설

◇준설 얼마나=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영산강 8개 구간 모두 준



영산강에서 나온 토사는 인근 농경지 리모델링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에도 사용됐다. 사진은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2단계 조성 현장으로. 이 부지 성토에 영산강 7공구 준설토가 활용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설이 마무리됐다.

전체적으로 1.5~2m의 토사를 걷어냈고, 이는 서울 남산의 절반 크기인 총 2454만 2000㎡에 달하는 양이다.

이 중 절반 가량(1246만㎡)은 수변공원 조성과 제방 쌓는데 사용됐다. 또 인근 농경지 성토(692만2000㎡), 산단 조성 등 공공사업(316만9000㎡)에도 쓰였다.

구간별 준설량은 ▲1공구 97만6000㎡ ▲2공구 260만1000㎡ ▲3공구 507만9000㎡ ▲4공구 218만4000㎡ ▲5공구 274만9000㎡ ▲6공구 724만2000㎡ ▲7공구 188만8000㎡ ▲8공구 38만8000㎡ 등이다.

제방 쌓고 농경지 돌아

◇어디에 쓰였나=대부분 영산강 살리기 현장에 투입됐다.

특히 제방이 한층 튼튼해졌다. 상단 독마루의 폭을 넓히고 제방 경사면도 이전보다 훨씬 완만하게 만들어 안전도를 높이면서 제방 붕괴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여기에 제방이 없어 매년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피해를 입었던 나주 다시민 열색박물관과 구진포 삼거리 인근 2.7km 구간에는 제방을 새로 만들었다.

농경지 리모델링에도 활용됐다. 이 사업은 영산강에서 파낸 준설토를 저지대의 농경지에 성토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광주·전남 6곳에 총 479ha의 농경지를 돌아왔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말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주시 영산동 김 모씨는 “비만 오면 잠겼던 논을 돌아 밭작물도 가능하게 됐다”며 “밭작물 재배로 소득도 높아졌고 땅값도 올라 만족하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조성에도 한 몫 했다.

흙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2단계 조성 사업에 인근 영산강 7공구에서 나온 준설토를 활용해 성토한 것이다.

김덕철 첨단산단 2단계 현장소장은 “2단계 부지는 농경지로 홍수위보다 낮은 상태였다”며 “영산강 준설토가 산단 조성 시기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생태계 회복 속도 주목

◇생태계 교란 등 비판 여전=학계와 환경단체는 여전히 비판적이다. 강바닥을 깊게 파내면서 수 천 년간 지속된 하천 생태계가 충격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승휘 호남대 교수는 “대규모 준설로 수심이 깊어질 경우 수생 생태계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교란이 심하면 그만큼 회복주기도 길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준설을 통해 상층부 일부 퇴적층을 걷어내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깨끗한 모래층이 남아있고, 예전에 비해 수질 및 수량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통해 생태계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업이 상공을 향하! 정읍이 환상! 오세요! 첨단산업도시 정읍으로!

WELCOME TO JEONGEUP I LOVE JEONGEUP